

##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예방교육 이행 정도

윤 영 미<sup>1</sup> · 임 미 영<sup>1\*</sup>

<sup>1</sup>서일대학 간호과

### Perception about bullying and education for bullying prevention among teachers

Young Mi Yoon<sup>1</sup>, Mee Young 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about bullying and education for bullying prevent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196 teachers who worked middle or high school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in 2008. We us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bullying assessment that modified by the investigator. Chi-square and ANOVA test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education for bullying prevention.

**Results:** The perception about bullying and education for bullying prevention of the teachers was examined in three domains: the perception about bullying's situation, cause, and solution. Teachers did not perceive bullying seriously but perceived that the main cause of bullying i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y recognized the solution of bullying is a responsibility for students, parent, teachers and society. The performance rate of education for bullying prevention was higher among teachers who perceived bullying seriously than the others.

**Conclusion:** The teachers could recognize origin of bullying between students and also could solve this origin. So, teachers' role is very important than everything else to prevent bully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bullying prevention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Bullying, Perception, Prevention

#### 1. 서 론

오늘날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그 연령이 저하되고 집단화되며 더욱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홍영기, 2000 ; 이명자, 2004).

(2009년 12월 8일 접수, 2009년 12월 20일 채택)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eoil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8.

Corresponding author : Mee Young Im, 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Seoidaehak-gil 22, Jungrang-gu, Seoul 131-702, Korea  
Tel : 82-2-490-7517, Fax : 82-2-490-7225, e-mail : imlydia@seoil.ac.kr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 집단 즉 친구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인데,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행동 혹은 가치관의 준거집단의 역할을 하며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자 활동무대인 것이다(한명모, 2002). 그러나 이들의 학교생활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특히 따돌림의 문제는 따돌리는 학생, 따돌림 당하는 학생 모두의 인격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인간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Parker & Asher, 1993; 김옥엽, 1999).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는 우울증,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자신에 대한 비난,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되며(Bernstein & Watson, 1997),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또래관계를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기술 등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기(Helsen 등, 2000)임에도 불구하고 따돌림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무력감과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학교부적응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Astor 등, 2000; Twemlow & Fonagy, 2005; 이정숙 등, 2007).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특성상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 계층이고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다. 교사들은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쉽게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안재록(2003)은 학교폭력이 예방 및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사의 33.7%, 학생의 24.1%가 교사의 관심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조치에서 교사의 49.5%, 학생의 26.3%가 교사와 학생의 수시 상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기관으로 교사의 21.1%, 학생의 41.3%가 학교를 선택하였다. 즉 학교 특히 교사와의 유대와 지원이 약화될수록 학교폭력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은 학교이고 또 그 안의 교사가 학교폭력 발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직무나 책임이 커질수록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Beran, 2006; 박종효 등, 2007).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막연한 생각뿐 발생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경우 따돌림 현상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라고 이해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차원적으로 당사자 간의 화해에만 노력해 온 실정이다(김정옥 1999). 집단따돌림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구분용, 1997; 박경숙 등, 1998)이기는 하지만 집단따돌림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학교는 따돌림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당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집단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교내 폭력 신고함의 설치, 인권교육의 실시, 학교풍토와 여건개선 등 학교차원의 대책을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이혜영, 1999; 이명자, 2004).

청소년 문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예방적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문제도 역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집단따돌림 및 이의 해결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들이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즉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가 학부모 또는 학생과 교사가 집단따돌림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지는 비교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예방교육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
-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이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내용 및 방법

중·고등학교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남녀공학 중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남고, 여고, 남녀공고 각각 1개)에 근무하는 교사를 편의표집하여 최종 196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수락하였으며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한명모(2001)가 제작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로서, 크게 집단따돌림 현황에 대한 인식 10문항, 집단따돌림의 주요인에 대한 인식 5문항, 집단따돌림의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6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평소 교육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 집단따돌림에 대한 생각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 2) 교사의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이행 정도

이는 이론적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여 사용한 도구로서, 크게 세 가지 하위 영역 즉 인권교육 등 예방을 위한 교육체계와 관련된 4문항, 현장 수시 파악 등 신고체계와 관련된 4문항, 사전예방을 위한 학교의 풍토 조성 등과 관련된 4문항으로 총 12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이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문항 14문항을 교사 2인과 간호학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 받은 후 결정한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 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각 학교의 보건교사 및 일반교사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였다. 보건교사 및 일반교사가 각 학교의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196부(100% 회수율)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와 예방교육 이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hi^2$  검정, Mann-Whitney 검정 및 Kruskal-Wallis 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교사 총 196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교사의 성별은 여자 115명(58.7%), 남자 80명(40.8%)이었으며, 연령은 36-45세 사이가 71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담임이 107명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6)

변 수	구 분	실 수	%
성 별	남	80	40.8
	여	115	58.7
연 령	25-35세	47	24.0
	36-45세	71	36.2
	46-55세	66	33.7
	56세이상	12	6.1
직 위	담임	107	54.6
	부담임	34	17.3
	비담임	55	28.1
교직경력	5년이하	27	13.8
	6-10년	39	19.9
	11-15년	24	12.2
	16-20년	38	19.4
	21-25년	37	18.9
	26년이상	24	12.2
학교형태 1	남학교	33	16.8
	여학교	29	14.8
	남녀공학	134	68.4
학교형태 2	중학교	102	52.0
	고등학교	94	48.0

(54.6%)이었으며, 교직경력은 6-10년 사이가39명(19.9%)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형태는 남녀공학이 134명(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가 102명(52.0%), 고등학교가 94명(48.0%)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은 크게 집단따돌림 현황에 대한 인식, 집단따돌림의 주요인에 대한 인식, 집단따돌림의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2).

집단따돌림 현황에 대한 인식에서,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문제를 접한 경험은 1-2회가 83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가 58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두 번 요청을 받았다가 101명(51.5%)으로, 피해학생을 도와준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개인상담하여 도움을 주었다가 79명(40.3%)으로, 집단따돌림 지도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염려가 95명(48.5%)으로, 피해학생의 해

결방법에 대해서는 혼자 해결하려 한다가 141명(71.9%)으로, 집단따돌림의 시간은 쉬는 시간이 167명(85.2%)으로, 집단따돌림의 장소는 교실이 85명(43.4%)으로, 집단따돌림을 목격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가정에 연계하여 상담한다가 89명(45.4%)으로, 집단따돌림 가해이유에 대해서는 별 생각없이 장난삼아가 88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의 주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피해학생의 개인적 요인이라는 응답이 104명(53.1%)으로, 개인적 요인 중 대인관계의 결함이 120명(61.2%)으로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의 가정적 주요인은 바쁜 핑계로 관심이 적은 부모, 자녀를 무시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가 각각 57명(29.1%)으로, 교육적 주요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82명(41.8%)으로, 그리고 사회적 주요인으로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108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의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에서, 피해학생이 해야 할 일로는 부모님이나 교사 혹은 상담실의 도움을 요청한다가 133명(34.8%)으로, 가해학생의 마음자세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한다가 167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

〈표 2〉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

(N=196)

1) 현황에 대한 인식							
변수	구분	실수	%	변수	구분	실수	%
학교에서 왕따 접한 경험	1-2회	83	42.3	학급에서 왕따 존재 여부	있음	58	29.6
	3-4회	64	32.7		없음	53	27.0
	5-6회	15	7.7		잘 모르겠음	11	5.6
	7회이상	20	10.2				
	없음	14	7.1				
피해학생의 도움요청 여부	도움 요청받은 적 없음	62	31.6	피해학생 도움방법	모든 체 함	2	1.0
	한두 번 요청 받음	101	51.5		개인상담	79	40.3
	가끔(3-4회) 요청 받음	24	12.3		부모와 같이 도움	65	33.2
	여러 번 요청 받음	8	4.1		전문상담실의 도움	13	6.6
				기타	6	3.1	
왕따지도시 애로사항	학생이 피해볼수 있다는 염려	95	48.5	피해학생 해결방법	혼자 해결	141	71.9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59	30.1		선생님과 상담으로 해결	22	11.2
	지도할 시간이 없다는 점	11	5.6		친구의 도움 받아 해결	9	4.6
	학교에서 관심보이지 않는 점	2	1.0		부모님과 상담하여 해결	19	9.7
	기타	7	3.6		기타	4	2.0
왕따 당하는 시간	수업시간	5	2.6	왕따장소	복도	20	10.2
	쉬는시간	167	85.2		학교내 으스스한 곳	55	28.1
	청소시간	4	2.0		학교주변(놀이터, 오락실 등)	10	5.1
	조회 및 종례시간	0	0		등하교길	6	3.1
	등하교시간(방과후)	10	5.1		주택가 또는 인적 드문 야산	0	0
	기타	7	3.6		교실	85	43.4
					기타	3	1.5
왕따목격시 대처방법	별 반응없이 모른체 함	1	0.5	왕따 가해 이유	스트레스 풀려고	15	7.7
	직접 나서서 도와줌	51	26.0		자기힘 과시하려고	56	28.6
	가정에 연계하여 상담	89	45.4		별 생각없이 장난삼아	88	44.9
	전문상담원에게 도움요청	50	25.5		마음 안드는 점 고쳐보려고	7	3.6
	기타	2	1.0		자기가 왕따 되지 않으려고	19	9.7
				따돌림에 대한 보복으로	2	1.0	
				기타	1	0.5	
2) 주요인에 대한 인식							
변수	구분	실수	%	변수	구분	실수	%
왕따피해 현상의 요인	개인요인	104	53.1	왕따피해 학생의 개인적요인	심리적 결함(자폐, 무력감등)	30	15.3
	가정요인	53	27.0		대인관계 결함	120	61.2
	학교요인	4	2.0		신체적 개인적 결함	15	7.7
	사회요인	29	14.8		행동적 결함	21	10.7
	기타	2	1.0		기타	2	1.0
왕따현상의 가정적 요인	공주병 만드는 부모	30	15.3	왕따현상의 교육적 요인	통제위주의 교육	47	24.0
	공격적 언어 사용하는 부모	32	16.3		입시위주의 교육	82	41.8
	바쁜 핑계로 관심없는 부모	57	29.1		교사의 무관심과 편애	20	10.2
	자녀무시, 일관성 없는 부모	57	29.1		틀에 맞춘 학생관리 체제	17	8.7
	기타	10	5.1		기타	23	11.7
왕따현상의 사회적 요인	매스컴의 한탕주의적 보도	6	3.1				
	학교(교사)에 대한 절망감	8	4.1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108	55.1				
	사회의 무관심, 빈부격차	37	18.9				
	학력위주의 경쟁사회	32	16.3				
기타	4	2.0					

3)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변수	구분	실수	%	변수	구분	실수	%
피해학생 대처방법*	괴롭히는 친구와 맞섬	100	6.2	가해학생 마음자세*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생각	45	11.8
	마음을 여는 자세 가짐	95	24.9		상대방 입장으로 이해	167	43.7
	부모 등 도움 요청	133	34.8		친구의 숨은 장점을 찾음	8	2.1
	학교활동 적극 참여	32	8.4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 가짐	56	14.7
	친구의 도움 요청	21	5.5		자신에게 돌아움을 앞	106	27.7
	기타	1	0.3		기타	0	0
왕따대처를 위한 가정의 역할	부모의 관심과 사랑	65	33.2	왕따대처를 위한 부모의 역할*	극복할 방법 가르쳐 줌	60	15.3
	가정의 화목	12	6.1		친구들과 여행 권장함	21	5.4
	부모 자녀간 원활한 대화	101	51.5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권함	74	18.9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	18	9.2		담임교사와 상담 해결함	92	23.5
기타	0	0	혼자 설 수 있도록 함		19	4.8	
					자신감 갖도록 함	60	15.3
					긍정적인 칭찬 격려해줌	53	13.5
					독립성과 존엄성 인정함	13	3.3
왕따대처를 위한 사회의 역할	가치관의 환기	138	35.6				
	해결프로그램 개발	75	19.3				
	청소년대상 교육에 참여	30	7.7				
	상담실의 접근성 높임	67	17.3				
	상담교육의 확대	78	20.1				

\* 중복문항

〈표 3〉 교사의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이행 정도

(N=196)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내용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이행정도	
	평균	표준편차
인권교육, 교육체계	3.38	0.82
현장수시 파악, 신고체계	4.06	0.70
학교풍토 조성	3.60	0.79
전체	3.61	0.61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은 부모-자녀간 원활한 대화가 101명(51.5%)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 역할은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해결한다가 92명(23.5%)으로, 사회의 역할로는 사회의 병리적 가치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가 138명(35.6%)으로 가장 많았다.

**3. 교사의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이행 정도**

교사가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는 5점 만점에 3.61점(0.61)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권교육등 교육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행정도는 3.38점(0.82), 현장

수시 파악등 신고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행정도는 4.06점(0.70), 학교풍토 조성과 관련된 이행 정도는 3.60점(0.79)으로 나타났다(표 3).

**4.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실태 및 예방교육 이행정도**

먼저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를 보면(표 4), 성별에서는 집단따돌림 지도시 애로사항( $X^2=14.50, P=.006$ ), 집단따돌림 현상의 가정적 주요인( $X^2=20.49, P=.000$ ), 집단따돌림을 위한 가정의 역할( $X^2=9.16, P=.027$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령에서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가정적 주요인( $X^2=21.89, P=.039$ )

<표 4>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

(N=196)

		성별				X <sup>2</sup>	P		
		남(%)	여(%)						
왕따지도시 애로사항	학생이 피해볼 수 있다는 염려	30(42.9)	64(62.1)		14.50	.006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34(48.6)	25(24.3)						
	지도할 시간이 없다는 점	2(2.8)	9(8.7)						
	학교에서 관심보이지 않는 점	0(0.0)	2(2.0)						
	기타	4(5.7)	3(2.9)						
왕따현상의 가정적 요인	바쁜 핑계로 관심적은 부모	34(43.6)	23(21.3)		20.49	.000			
	자녀무시, 일관성 없는 부모	18(23.0)	39(36.1)						
	공주병, 왕자병 만드는 부모	17(21.8)	13(12.0)						
	공격적 언어 사용하는 부모	8(10.3)	24(22.2)						
	기타	1(1.3)	9(8.4)						
왕따대처를 위한 가정의 역할	부모-자녀간 원활한 대화	40(50.0)	61(53.0)		9.16	.027			
	부모의 관심과 사랑	21(26.3)	43(37.4)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	10(12.5)	8(7.0)						
	가정의 화목	9(11.2)	3(2.6)						
	기타	0(0.0)	0(0.0)						
		연령(세)				X <sup>2</sup>	P		
		25-35	36-45	46-55	56+				
왕따현상의 가정적 요인	자녀무시, 일관성 없는 부모	17	21	17	2	21.89	.039		
	바쁜 핑계로 관심적은 부모	8	18	23	8				
	공주병, 왕자병 만드는 부모	4	12	13	1				
	공격적 언어 사용하는 부모	13	12	7	0				
	기타	2	4	4	0				
		담임여부			X <sup>2</sup>	P			
		담임	부담임	비담임					
학급에서 왕따 존재	있음	51	1	6	15.57	.004			
	없음	50	2	1					
	잘 모르겠음	6	2	3					
피해학생의 도움요청 여부	도움 요청받은 적 없음	29	12	21	13.91	.031			
	한두 번 요청 받음	65	17	19					
	가끔(3-4회) 요청 받음	10	4	10					
	여러 번 요청 받음	3	0	5					
왕따지도시 애로사항	학생이 피해볼 수 있다는 염려	58	15	22	18.43	.018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24	12	23					
	지도할 시간이 없다는 점	10	0	1					
	학교에서 관심보이지 않는 점	0	1	1					
	기타	6	1	0					
		경 력(년)						X <sup>2</sup>	P
		-5	6-10	11-15	16-20	21-25	26+		
왕따현상의 사회적 요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17	21	8	20	24	16	39.87	.030
	사회의 무관심, 빈부격차	6	5	5	11	6	3		
	매스컴의 한탕주의적 보도	1	0	1	0	1	2		
	학교(교사)에 대한 절망감	0	2	5	0	0	1		
	학력위주의 경쟁사회	3	10	5	7	4	2		
	기타	0	1	0	0	1	0		

		학교형태 1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X <sup>2</sup>	P
학교에서 왕따 접한 경험	1-2회	15(45.5)	21(72.4)	47(35.1)	23.29	.003
	3-4회	13(39.4)	5(17.2)	46(34.3)		
	5-6회	0(0.0)	1(3.5)	14(10.4)		
	7회이상	1(3.0)	0(0.0)	19(14.2)		
	없다	4(12.1)	2(6.9)	8(6.0)		
학급에서 왕따 존재	있음	7(30.4)	5(23.8)	46(59.0)	14.35	.006
	없음	15(65.2)	12(57.1)	26(33.3)		
	잘 모르겠음	1(4.4)	4(19.1)	6(7.7)		
피해학생 도움방법	부모와 같이 도움	10(35.7)	12(50.0)	43(38.1)	16.87	.031
	개인상담	12(42.9)	8(33.3)	59(52.2)		
	전문상담실의 도움	2(7.1)	4(16.7)	7(6.2)		
	모른 채 함	0(0.0)	0(0.0)	2(1.8)		
	기타	49(14.3)	0(0.0)	2(1.7)		
		학교형태 2				
		중학교(%)	고등학교(%)	X <sup>2</sup>	P	
학교에서 왕따 접한 경험	1-2회	33(32.3)	50(53.2)	14.87		.005
	3-4회	36(35.3)	28(29.8)			
	5-6회	12(11.8)	3(3.2)			
	7회 이상	15(14.7)	5(5.3)			
	없다	6(5.9)	8(8.5)			
학급에서 왕따 존재	있음	39(65.0)	19(17.8)	14.59		.001
	없음	18(30.0)	35(32.7)			
	잘 모르겠음	3(5.0)	53(49.5)			
피해학생의 도움요청 여부	도움 요청받은 적 없음	26(25.5)	36(38.7)	15.24		.002
	한두 번 요청 받음	50(49.0)	51(54.8)			
	가끔(3-4회) 요청 받음	18(17.7)	6(6.5)			
	여러 번 요청 받음	8(7.8)	0(0.0)			
왕따가해 이유	별 생각없이 장난삼아	39(40.6)	49(53.3)	15.49		.017
	자기힘 과시하려고	32(33.3)	24(26.1)			
	스트레스 풀려고	12(12.5)	3(3.3)			
	자기가 왕따 되지 않으려고	12(12.5)	7(7.6)			
	마음 안드는 점 고쳐보려고	1(1.1)	6(6.5)			
	따돌림에 대한 보복으로	0(0.0)	2(2.2)			
	기타	0(0.0)	1(1.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위에서는 학급에서의 집단따돌림 존재 여부( $X^2=15.57, P=.004$ ), 피해학생의 도움요청여부( $X^2=13.91, P=.031$ ), 집단따돌림 지도시 애로사항( $X^2=18.43, P=.018$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에서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사회적 주요인( $X^2=39.87, P=.03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형태 1(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을 접한 경험( $X^2=23.29, P=.003$ ), 학급에서의 집단따돌림 존재여부( $X^2=14.35, P=.006$ ), 피해학생의 도움방법

( $X^2=16.87, P=.03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형태 2(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을 접한 경험( $X^2=14.87, P=.005$ ), 학급에서의 집단따돌림 존재여부( $X^2=14.59, P=.001$ ), 피해학생의 도움요청여부( $X^2=15.24, P=.002$ ), 집단따돌림 가해이유( $X^2=15.49, P=.017$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 이행 정도를 보면<표 5>, 학교형태 1(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F=9.51, P=.009$ ),



학교형태 2(중학교, 고등학교)(F=4.20, P=.040)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IV. 고 찰**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집단따돌림 현황에서는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문제를 접한 경험이 있다에 교사의 92.9%가 응답한 반면 맡고 있는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가 29.6% 응답하였는데, 이는 집단따돌림 문제를 학교 전체적으로는 심각하게 인식하며 많은 관심은 갖고 있으나 자신의 반에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담임교사가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피해학생의 도움을 요청받았는지의 여부에서는 한두번 요청을 받았거나(51.5%) 또는 요청받은 적이 없다(31.6%)라고 하여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교사들은 피해학생을 위한 도움방법에서 개인상담하여 도움을 주

었거나(40.3%) 부모와 같이 도움을 주었다(33.2%)로 응답하여 약 73.5%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교사와 피해학생 사이에 서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집단따돌림 지도시 애로사항으로 학생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48.5%)라고 하였고, 피해학생의 해결방법으로는 혼자 해결하려 한다(71.9%)하고 한 점으로 보아 교사의 집단따돌림 지도가 실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따돌림 시기와 장소에서는 쉬는 시간(85.2%)에 교실(43.4%)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눈을 피해 학교 내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사들은 별 생각없이 장난삼아(44.9%)라고 응답하면서, 집단따돌림을 목격했을 때 가정 또는 상담원과 연계하거나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등(95.5%) 직간접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해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집

**<표 5>**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이행 정도

(N=196)

구 분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이행정도				
	Mean	SD	t or F	P	
성별	남	3.55	0.63	1.78	.183
	여	3.66	0.59		
연령	25-35세	3.64	0.53	.31	.959
	36-45세	3.61	0.57		
	46-55세	3.61	0.65		
	56세 이상	3.58	0.90		
직위	담임	3.57	0.63	1.90	.387
	부담임	3.74	0.51		
	비담임	3.62	0.62		
교직경력	5년 이하	3.56	0.58	4.57	.470
	6-10년	3.69	0.47		
	11-15년	3.46	0.51		
	16-20년	3.63	0.71		
	21-25년	3.70	0.62		
	26년 이상	3.50	0.78		
학교형태 1	남학교	3.45	0.75	9.51	.009
	여학교	3.38	0.56		
	남녀공학	3.70	0.56		
학교형태 2	중학교	3.70	0.58	4.20	.040
	고등학교	3.52	0.64		

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은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보고하지 않은 이상 교사가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 박종효(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의 주요인에 대해 교사는 피해학생의 개인요인(53.1%), 가정요인(27.0%), 사회요인(14.8%), 학교요인(2.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개인적 요인 중 대인관계의 결함을 주요인으로, 가정적 주요인은 바쁜 핑계로 관심이 적은 부모, 자녀를 무시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를 들었으며, 교육적 주요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 그리고 사회적 주요인으로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주요인으로 들었다. 이는 교사들은 주로 집단따돌림 현상의 원인을 우선은 아동자신의 성격이나 행동문제 그 다음은 부모의 양육태도,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회풍토 등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처방안에 대해 교사는 피해학생이 해야 할 일로 부모님이나 교사 혹은 상담실의 도움을 요청한다로, 가해학생의 마음자세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한다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은 부모-자녀간 원활한 대화로, 부모의 역할은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해결한다로, 사회의 역할로는 사회의 병리적 가치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집단따돌림이 행해지는 주무대가 학교임을 고려할 때 해결의 주체 또한 학교이므로 학생들과 가까이 있는 교사가 집단따돌림 현상을 중재하거나 이를 예방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의 재발예방 훈련 등 일상생활 대처 기술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따돌림과 같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홍영기, 2000).

교사가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행 정도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비교적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비교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하위영역별 순서를 살펴보면 현장수시 파악 등 신고체계와 관련된 이행, 학교풍토 조성 및 관련된 이행 정도, 인권교육 등 교육체계에 관련된 이행 순으로 나타나, 학교가 집단따돌림 의견함이나 신고함을 설치하여 즉각 대응하는 체제의 구축 및 신고를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반면, 집단따돌림의 주원인을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보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기 위한 인권교육은 비교적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를 보면, 성별에서는 집단따돌림 지도시에 로사항에서 남녀교사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교사들은 피해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고 여자교사들은 피해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라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은 남자교사에게 집단따돌림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여자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하는 감정이 세심하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한명모, 2002) 보인다. 집단따돌림 현상의 가정적 주요인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정의 역할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적 주요인을 남자교사들은 바쁜 핑계대고 관심이 적은 부모로, 여자교사들은 자녀를 무시하고 일관성 없는 부모로 응답하였으며, 남녀교사 모두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정의 역할로 부모-자녀간 원활한 대화를 주요 역할로 들면서 여자교사들의 경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남자교사들보다 더 주요 역할로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에서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가정적 주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45세 이하의 젊은 교사들은 자녀를 무시하고 일관성 없는 부모를 주요인이라 하였으나 46세 이상의 교사들은 바쁜 핑계대고 관심이 적은 부모를 주요인이라 하였다.

직위에서는 학급에서의 집단따돌림 존재여부, 피해학생의 도움요청여부, 집단따돌림 지도시에 로사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는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피해학생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지 않은 교

사가 많았고 가장 큰 애로사항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라 하였으나, 담임이나 부담임 교사는 피해학생으로부터 한두번 도움을 요청받은 교사가 많았고 지도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생이 피해볼 수 있다는 염려를 가장 많이 하였다.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는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는 이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거는 일반적인 기대는 그 이상임을 의미한다.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에 따라서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을 접한 경험, 학급에서의 집단따돌림 존재여부, 피해학생의 도움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녀공학에 재직하는 교사는 남학교와 여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에 비해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접한 경험이 많았고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방법에서는 개인상담보다는 부모와 같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을 접한 경험, 학급에서의 집단따돌림 존재여부, 피해학생의 도움요청여부, 집단따돌림 가해이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고 학급에 집단따돌림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도움을 더 많이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집단따돌림 피해가 더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를 알아본 결과 가해 및 피해 정도 모두가 중학생에게 높게 나타난(윤영미, 2007) 보고와 집단따돌림이 초등학교 때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학교에서 정점을 이루고 고등학교에서 감소하게 된다(Banks, 1999)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은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학교형태 1(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형태 2(중학교, 고등학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공학에 재직하는 교사는 남학교, 여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보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접한 경험이 많고 실제 학급에 집단따돌림이 존재한다고 많이 응답한 남녀공학이나 중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권이중(2000)은 집단따돌림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급 현장에서는 그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실제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더불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뿐 아니라 자신의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가 집단따돌림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접근도 해야 하겠지만, 학급에 집단따돌림이 존재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따돌림이 허용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하여 함께 따돌리지 않아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실마리일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집단따돌림 및 이의 해결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행 정도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와 예방교육 이행 정도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SPSS wi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hi^2$  검정, Mann-Whitney 검정 및 Kruskal-Wallis 검정,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문제를 접한 경험은 1-2회가 83명(42.3%)으로,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가 58명(29.6%)으로,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요청을 받았다가 101명(51.5%)으로, 피해학생을 도와준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개인상담하여 도움을 주었다가 79명(40.3%)으로, 집단따돌림 지도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염려가 95명(48.5%)으로, 피해학생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혼자 해결하려 한다가 141명(71.9%)으로, 집단따돌림을 시키는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 167명(85.2%)으로, 집단따돌림을 시키는 장소는 교실이 85명(43.4%)으로, 집단따돌림을 목격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가정에 연계하여 상담한다가 89명(45.4%)으로, 집단따돌림 가해이유에 대해서는 별 생각없이 장난삼아가 88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2. 집단따돌림의 주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피해학생의 개인적 요인이라는 응답이 104명(53.1%)으로, 개인적 요인 중 대인관계의 결함이 120명(61.2%)으로, 집단따돌림의 가정적 주요인은 바쁜 핑계로 관심이 적은 부모, 자녀를 무시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가 각각 57명(29.1%)으로, 교육적 주요인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82명(41.8%)으로, 그리고 사회적 주요인으로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108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3. 집단따돌림의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에서, 피해학생이 해야 할 일로는 부모님이나 교사 혹은 상담실의 도움을 요청한다가 133명(34.8%)으로, 가해학생의 마음자세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한다가 167명(43.7%)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은 부모-자녀**

**간 원활한 대화가 101명(51.5%)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 역할은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해결한다가 92명(23.5%)으로, 사회의 역할로는 사회의 병리적 가치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가 138명(35.6%)으로 가장 많았다.**

**4. 교사가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권교육 등 교육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행정도는 3.38점, 현장수시 파악 등 신고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행정도는 4.06점, 학교풍토 조성 관련 이행정도는 3.60점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행 정도를 살펴 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연구대상을 더 확대하여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 실태와 예방을 위한 교육이행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즉 인권교육과 신고시 즉각 대응하여 상담할 수 있는 자질 및 여건 조성을 포함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 문헌

- 권이중(2000).. 학교 내에서의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학교내의 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7(2), 1-37.
- 구본용(1999).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광장.
- 김옥엽(1999). 전라북도 지역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3, 85-124.
- 박경숙, 손희권, 송계정(1999). 학생의 왕따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효, 박효정, 정미경(2007).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 연구-발생건수, 심각성 지각과 대처 효능감의 관련성-. 한국교육, 34(2), 3-25.
- 안재록(2003).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
- 윤영미(2007). 초·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향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2), 230-240.
- 이명자(2004).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
-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1), 32-40.
- 이춘재, 광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와 특성. 집문당.
- 이혜영(1999).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학교모델. 제2회 청소년상담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시청 소년종합상담실.
- 한명모(2002). 집단따돌림(왕따)현상에 대한 교사들의 지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홍영기(2000). 초등학교 집단따돌림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인식 비교.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Astor, R.A., Pitner, R.O., Meyer, H.A. & Vargas, L.A.(2000). The most violent event at school : a ripple in the pond. Child and Schools, 22 (4), 199-216.
- Banks, R.(1999). Bullying in schools Moravia, NY: Chronic guidance Publications.
- Beran, T.N.(2006). Preparing teachers to manage school bullying: The hidden curriculum. The Journal of Educational Thought, 40, 119-128.
- Berstein, I.Y. & Watson, M.W.(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Helsen, M., Vollebergh, W., & Mees, W.(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 in adolescence. J. Youth Adol, 29(3), 319-335.
- Parker, J.G. & Asher, S.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 Psychol, 29(4), 611-621.
- Twemlow, S.W. & Fonagy, P.(2005). The prevalence of teachers who bully students in schools with differing levels of behavioral problem. Am J Psychiatry, 162(12), 2387-2389.